

목포 '삼학도 항구포차' 12일 개장

통일된 컨셉 컨테이너 부스 15개 들어서 특색있는 자체개발 메뉴 등 100여 종 음식

목포의 맛과 낭만을 전할 전남 목포 항구포차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는 12일 개장한다. 목포시는 맛의 도시에 걸맞은 최고의 음식과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삼학도 항구포차가 12일 오

후 6시 개장식과 함께 첫 영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목포 항구포차는 관광객들에게 항구도시의 특별한 맛과 분위기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목포시가 지난 해 10월부터 아심차게 준비해 왔다. 삼학도 옛 해경부두 부지에 조성된 포차에는 안전과 미관을 고

려한 통일된 컨셉의 컨테이너 부스 15개가 들어섰다. 낙지, 민어, 흥어삼합 같은 목포의 전통 먹거리뿐만 아니라 점포마다 특색 있는 자체개발 메뉴까지 총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운영자 15명은 맛있는 음식과 친절·정결로 항구포차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물포차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개장에 따라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이벤트도 연다. 11일 임시오픈해 100여종에 해당하는 모든

메뉴(주류 제외)를 50% 할인 판매하고 12일 공식개장일에는 모든 주류를 병당 1000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포차 전면에 목포 내항과 유달산을 배경으로 하는 상설 야외무대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실력과 뮤지션들이 버스킹(거리공연)을 펼친다. 목포 항구포차는 연중 휴무 없이 매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초등 '방과 후 바둑교실' 운영

신안군은 2019년부터 비금·도초권의 6개교(압해3교, 자은, 압태, 안좌)를 포함 총 9개 초등학교에 방과 후 바둑교실 운영을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됐던 학교 수업이 6월부터 재개함에 따라, 방과후 바둑교실도 개시하게 되었으며 1일 2~3시간, 주 2회 바둑수업을 하게 된다. 9개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바둑강사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이 초과되는 수업은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입문용 바둑교재를 제공받아 강의용·학습용 바둑판에서 수준별·단계별 바둑수업을 이수하게 된다. 신안군은 건전한 정신문화인 바둑의 보급을 통하여 어린이 인성개발과 지능개발을 꾀하고, 향후 대한민국 바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추후 관내 모든 학교에 단계적으로 바둑교실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20 무안군 여름밤 감성 버스킹' 참가자 모집

군 관내 개인·동아리·단체 대상 19일까지

무안군은 '2020 무안군 여름밤 감성 버스킹'에 참여할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연장이 아닌 거리와 광

장에서 소규모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안전하게 거리두기를 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리공연을 기획했다. 버스킹 공연은 6월 중순부터 8

월까지 남야 중앙공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음악, 연주, 미술, 마임, 댄스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에서 공연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 무안군에 거주하는 개인·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나 단체는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서를 다운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공연 동영상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공연팀에게는 소정의 공연료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관람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매주 금요일 저녁 야외에서 거리공연을 관람하며 감성 충만한 여름밤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어업자원 증강 위한 어린 감성돔 방류



영광군은 8일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어린 감성돔 12만 마리를 칠산해역에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별도의 행사 없이 진행되었다. 감성돔은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내만성 어종으로 수심 50m 이내 해조류가 있는 모래질이나 암초지대 연안에서 서식한다. 1년생의 경우 대부분 수컷이며, 3~4년생은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하기도 한다. 감성돔은 쫄깃한 식

감이 좋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횡감 중 하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고소득 품종으로 손꼽힌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산종자를 방류한 어장 주변에서는 방류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사용을 금지하고, 어로 활동 중 어획된 치어는 재방류해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은 6천만 원을 투자하여 71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하반기에는 1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동자개, 자라, 보리새우를 방류하여 수산자원회복에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전기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함평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총 5대로,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천 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집 규모를 초과한 신청이 있을 경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평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단체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추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함평 옥동·수하지구,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지구 선정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역에 지역 옥동·수하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농작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50ha 이상)를 대상으로 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신규 착수대상 지구 9개소, 기본조사 대상지구 7개소 등 총 16개 지구가 올해 배수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 신규 착수대상 지구로 선정되면서 64억여 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한 시름 놓게 됐다. 군은 확보한 사업비로 대동면 상곡리·금곡리, 나산면 수하리 일대 농경지 53ha 면적에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와 용수로 등의 매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